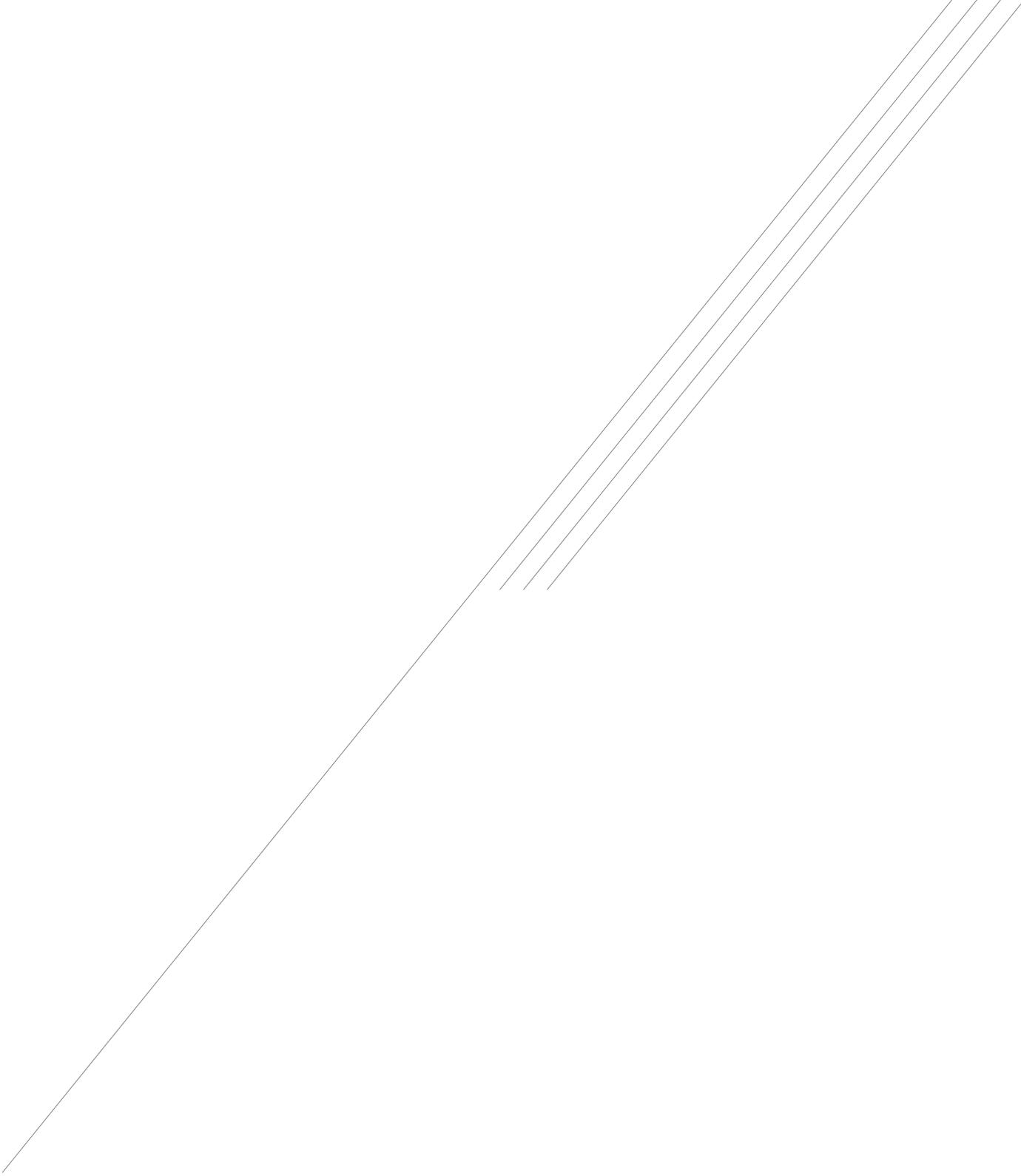


NYPI YOUTH REPORT

G20 이후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Vol.26 _ 2011. 12. 19 | 윤철경 선임연구위원 ●



NYPI YOUTH REPORT

Vol.26 _ 2011. 12. 19 | www.nypi.re.kr

발행일 2011. 12. 19

발행인 이재연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교총빌딩 9/10층

전 화 2188-8800

팩 스 2188-8869

인 쇄 양동문화사

G20 이후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2011. 12. 19 | 윤철경 선임연구위원 ●

CONTENTS

1. 글로벌 시티즌십의 필요성 _ 03
2.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_ 08
3. 정책방안 _ 11

G20 이후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요약

- OECD DAC 가입, G20 정상회담 의장국 등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지구촌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과 참여가 높아져야 함.
- ‘글로벌 시티즌십’은 ‘글로벌 리더십’의 열등 개념이 아니라 인류와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인이 지녀야 할 책임과 실천능력으로 ‘글로벌 시티즌십’이 상위의 목표임.
- 한국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율이 유럽 선진국 등에 비해 매우 저조하여 글로벌 시티즌십을 함양할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함.
- 교육과학기술부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행으로 학교에서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전문적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에 있음.
- 청소년시설·단체, 해외원조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류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글로벌 시티즌십을 향상시키는데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선도가 필요함.
- 이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 산하에 ‘(가칭)글로벌 시티즌십 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반 시민 및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의 수립, 지역사회 추진체계 구축, 모델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개발, 지도인력의 양성 및 연수체제 마련이 필요함.

1. 글로벌 시티즌십의 필요성

■ 시대적 배경

-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OECD 가입, G20 정상회담 의장국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졌음.
 - ▶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위치에서 도움을 주는 위치로 변화되면서 국민의식도 이러한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변화되어야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글로벌 사회는 이제 개인의 생활세계가 되었음.
 - ▶ 한국의 청소년들은 역사상 전례 없는 「글로벌 국가-글로벌 세대」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이에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습득하는 것은 필수조건이 되어 가고 있음.
 - ▶ 더욱 긴밀해지는 상호의존의 지구촌 시민으로서, 청소년들이 향후 직면하게 될 도전을 잘 극복하고 글로벌 사회를 잘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가 요구됨.

■ 글로벌 시티즌십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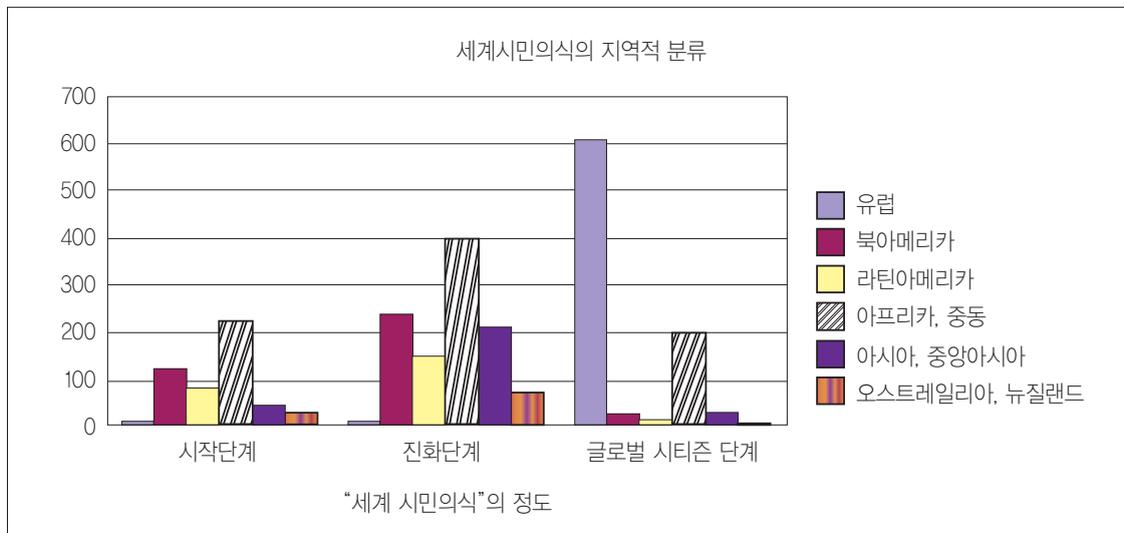
- 종전에는 ‘글로벌 리더십’, ‘글로벌 리더’, ‘글로벌 인재’가 한국사회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로 인식되어 왔음.
 - ▶ 글로벌 리더십은 세계화와 더불어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개인과 사회의 존속·발전을 위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우수 인재에게 필요한 조건으로 인식되어 왔음.
 - ▶ 이에 비해, 글로벌 시티즌십은 인류와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반시민이 가져야 할 책임과 실천능력으로서의 의미를 지님.
- 종래의 한국사회에서 글로벌 리더십은 글로벌 시티즌십에 비해 우위에 있는 듯이 여겨졌으며 소수의 인재들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인식되었으나, 다원문화를 추구하는 한국사회에서 이제는 모든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글로벌 시티즌십’을 보편적 교육목표로 설정해야 함.
 - ▶ 영·미 선진국의 경우, 리더십은 시티즌십을 구성하는 한 요소이고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필요한 목표로서 시티즌십을 더욱 강조하고 중시하고 있음.

※ 영국은 학교교육과정에 별도의 교과목으로 '시민교과'를 도입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임.

- ▶ 이제 한국사회는 경쟁력을 강조하는 '글로벌 리더십'보다는 국민 개개인이 국제(지구촌)사회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지향하는 '글로벌 시티즌십' 개념으로 사회적·교육적 목표를 전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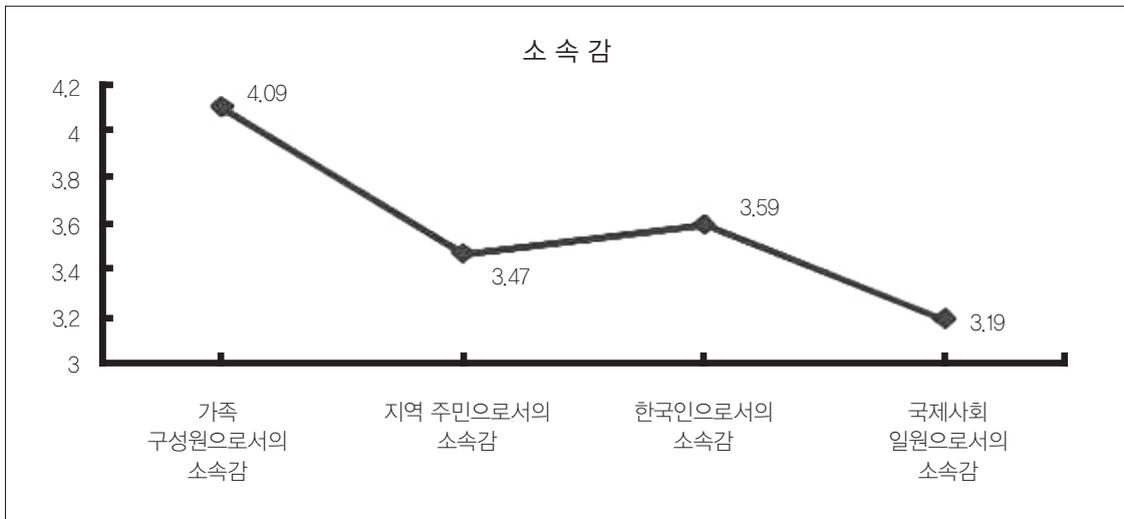
■ 한국의 글로벌 시티즌십 수준

- 국제조사에 따르면 유럽지역은 글로벌 시티즌이 많고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 지역에는 글로벌 시티즌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인은 가족구성원 또는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은 높는데 비해 **국제사회 구성원**, 지역주민으로서의 소속감은 현저히 낮음.



*출처: Our World Alliance(2006), The World Youth Identity and Citizenship Survey.

【그림 1】 지역별 글로벌 시티즌십 수준



*주: 5점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자료: 김태준(2009).

【그림 2】 국제사회 소속감 정도

- 다문화 수용성을 보면, 지역적으로 먼 ‘외국에 있는 한민족’에 비해 외국인이거나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 대한 수용성이 더 낮음.
 - ▶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져 개선되고 있으나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음.
 - ▶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배려와 나눔 등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이 더 필요함을 보여줌.

【표 1】 이민자의 허용도 평균비교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외국에 있는 우리민족후손들	M	3.22	3.27	3.33
	SD	.77	.75	.72
우리민족이 아닌 외국인	M	2.78	2.93	2.93
	SD	.82	.73	.69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M	2.72	2.66	2.64
	SD	.91	.85	.80

*주: 5점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자료: 김태준(2009).

- 지역사회 시민활동 참여율을 보면 유럽 4개국, 아시아 2개국과 비교할 때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청소년들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입시경쟁에 따른 학습 부담으로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참여가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음
 - ▶ 상대적으로 참여수준이 높은 활동은 종교활동, 자원봉사활동, 캠페인활동 등에 국한되고 있는데, 이는 학생자원봉사제의 도입으로 학생들의 참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임.

【표 2】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시민활동 참여율

(단위: 평균(표준편차))

국 가	학교 밖 시민활동 참여율								
	정당이나 연합산하 청소년 단체	환경 단체	인권 단체	지역사회 자원봉사 그룹	사회적 대의명분을 위한 모금단체	민족성에 기반을 둔 문화단체	종교그룹이나 단체	이슈에 대한 캠페인 활동 청소년 그룹	
한 국	4(0.3)	5(0.3)	2(0.2)	18(0.7)	8(0.7)	2(0.2)	25(0.8)	10(0.6)	
유 럽	영국	15(0.9)	18(1.1)	8(0.7)	39(1.4)	46(1.3)	12(1.0)	26(1.4)	17(1.0)
	핀란드	3(0.3)	9(0.5)	1(0.2)	14(0.6)	20(0.9)	2(0.3)	18(1.1)	10(0.6)
	노르웨이	8(0.6)	13(0.9)	10(0.7)	20(0.9)	52(1.1)	12(0.7)	19(1.5)	23(0.7)
	스웨덴	7(0.5)	8(0.5)	7(0.5)	14(0.7)	23(1.0)	6(0.4)	24(1.0)	14(0.6)
아시아	태국	23(1.1)	71(0.8)	39(1.0)	57(1.0)	56(1.0)	38(1.2)	65(1.0)	59(1.0)
	대만	4(0.3)	9(0.5)	3(0.3)	20(0.7)	17(0.7)	10(0.6)	30(0.8)	6(0.4)

*출처: ICCS(2010) 조사결과를 편집한 것임.

- 대외공적원조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보면, 19세 이상 국민들의 절반 정도는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제공에 관해 아직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며, 대외원조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 않고, 대외원조 규모에서도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표 3】 ODA 관련 국민인식조사 비교

조사내용	결 과	
	2005	2008
공적개발원조제공 사실 인지도	공적개발원조 제공 사실 알고 있다 37.1%	공적개발원조 제공 사실 알고 있다 51%
개발도상국 대외원조 지지도	찬성 62.3%	찬성 58%
국력감안시 현재 대외원조 규모 평가	확대 필요 47.6%	현수준 유지 53%
대외원조 기여도 평가	국제사회 문제해결과 국익에 기여한다 59.7%	국제사회 문제해결과 국익에 기여한다 72%

* 자료: 이상백(2009).

**조사대상: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2.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 부처별 정책 현황

- 외교통상부(한국국제협력단)는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을 추진함.
 - ▶ 2009년 11월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계기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입장이 전환됨.
 - ▶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기여 및 공적개발원조(ODA)의 양적·질적 개선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확산이 요구됨.
 - ▶ 이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 및 참여도 제고, 세계 시민의식 함양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여 및 위상 강화를 도모하고자 2009년부터 '국제개발협력사업 이해증진 사업'을 추진함.
 - ▶ 2009년에 전국 17개 대학에 교과목 개설을 지원하였고 세미나, 워크숍, 캠프, 연수 등 20개 민간단체의 직접 발굴사업을 지원하였음.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 추진 여건을 마련함.
 - ▶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신설되었으며 초등학생에게는 680시간(6년간), 중학생에게는 306시간(3년간), 고등학생에게는 408시간(3년간)이 배당됨.
 - ▶ 개정 교육과정에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에서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음.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 세계 26개국과의 국가간 청소년 교류,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청소년해외체험 프로그램, 아시아 청소년초청 연수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을 도모하고 있음.

■ 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

-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을 위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매우 미미함.
 - ▶ 청소년시설·단체에서 실시하는 해외체험, 봉사활동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해외원조단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나 강의 등이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과 관련된 프로그램임.

- 학교,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해외원조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글로벌 시티즌십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글로벌 시티즌십 수준이 향상되었음.
 - ▶ 9개 사례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참여한 청소년들의 글로벌 시티즌십 수준을 측정한 결과,
 - ※ 9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자민족중심주의’ 는 6점 만점에 3.22점, 글로벌 시티즌십 수준은 6점 만점에 대체적으로 4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서 참가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수준이 긍정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음.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해외체험단(터키), 국제워크캠프기구의 해외자원봉사활동인 YESIA, 월드비전의 세계시민학교 지도부행군단 등 3개 프로그램이 글로벌 시티즌십의 향상을 보였음.
 - ※ 글로벌 시티즌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참가자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문화중심주의의 영향력이 적을수록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수준이 높아졌음.
 -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참여가 글로벌 시티즌십 향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성과를 보이는 프로그램은 활동내용에 해외체험을 포함하고 있거나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역동적인 프로그램임.

- 한국의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은 아직 초기 단계로서 아직 체계적으로 개발된 모델 프로그램이 없으며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을 선도해 나갈 전문기관·단체도 없는 실정임.

■ 추진여건 분석 및 문제점 진단

-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선도가 부족함.
 - ▶ 글로벌 시티즌십과 관련하여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는 글로벌 시티즌십에 대한 이해와 정책 마인드가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대외원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또한 관련 사업이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어 관련 3개 부처 중 어디에서도 청소년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선도를 하지 못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국제개발부가 주도적이며 대표적인 민간단체인 Oxfam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글로벌 시티즌십 가이드라인과 교재, 자료 등을 개발하여 학교 등에 제공하고 있음. 교육기술부는 독립된 교과목으로 시민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등 관련부처들이 파트너십을 갖고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 개발교육의 실행기관인 해외원조단체도 청소년 대상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 이를 선도해 나갈만한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민간단체가 전문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 정책을 견인하여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의 발전을 선도하여 왔음.

- 2011년부터 각급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시행함으로 학교에서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은 향상되었으나 학교장이나 교사 등 학교현장의 글로벌 시티즌십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수준에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
 - ▶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 프로그램, 교재 등 인프라가 취약함.
 - ▶ 글로벌 시티즌십 관련 교육자들이 접촉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Gateway가 없음.

3. 정책방안

■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

-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은 대외공적원조의 규모가 발전하면서 함께 발전하게 됨.

※ 일본의 경우, 1977년 1억 4천 2백만 달러로 시작한 대외공적원조가 1989년에는 OECD국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해외원조단체도 400여개로 양적 성장을 하였음.

- 한국은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에 따라, 앞으로 한국의 대외공적원조의 규모도 증대될 것이므로 이를 위해 일반시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을 담당할 추진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교수방법 개발, 허브기관 육성 등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을 전담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 산하에 ‘(가칭)글로벌 시티즌십 위원회’를 설치함.
 - ▶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와 청소년단체·시설, 해외원조단체, 각급 교육기관 등이 협력하여 초·중·고 학생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로드맵을 수립함.

※ 일본의 경우, 1982년 개발NGO, 청소년단체,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개발교육위원회(The Development Education Council of Japan, DECJ)를 결성하여 외무성의 재정지원을 받아 각종 컨퍼런스,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등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을 지원함.

- 프로그램 및 교재, 교육자료 교수방법 등을 개발·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함.
 - ▶ 영국, 일본 등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현 수준에서 벗어나 한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필요함.

- 지역차원에는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네트워크’를 구성함.
 - ▶ 지자체, 교육청, 청소년단체 및 시설, 해외원조단체 지부 등이 참여하여 지역차원의 추진 체계를 구축함.
 - ▶ 지역 글로벌 시티즌십 전문가 양성 및 전문가 풀 구축, 세미나 및 지도자 연수 등 지역의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 프로그램을 협의하고 이것을 통한 실천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을 위한 On-line Gateway 구축

-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은 국내외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자와 청소년들이 실시간으로 접촉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실생활과 연관돼 풍부해질 수 있음.
 - ▶ 지역적으로 근접한 한국과 아세안국가 또는 한·중·일·러시아 등 동북아 인접국가의 교육자들과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Gateway를 구축하며, 이후 기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 영국은 200여개 학교가 아시아의 400개 학교와 온라인을 통해 접촉할 수 있는 Gateway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음.
- ※ 사이버외교사절단 V@NK의 활동도 Gateway의 좋은 사례임.

■ 가이드라인 및 모델 프로그램 개발·보급

○ 교육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의 핵심요소들을 다룰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일선학교와 청소년시설·단체 등에 보급함.

※ 영국의 경우,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을 위해 필요한 학년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음.

○ 모델 프로그램 개발·보급

- ▶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해외 또는 국내에서 실행된 숙박형 체험형 캠프가 효과가 있고, 활동내용에 있어서도 토론이나 강의보다는 봉사활동 등 체험 프로그램이 더 큰 효과가 있었음.
- ▶ 성과가 입증된 모델 프로그램들을 지역사회 자원기관들이 학교 인바운드형, 아웃바운드형, 캠프형, 정기형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교가 이를 창의적 체험활동의 한 영역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 평가 및 컨설팅 도입

○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

- ▶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학교, 청소년시설·단체 등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
- ▶ NPI(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글로벌 시티즌십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을 통해 효과를 평가함.
- ▶ 성과가 낮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프로그램 개선을 촉진함.

■ 지도인력 양성 및 연수

-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을 위한 지도인력의 양성을 지원함.
 - ▶ 학교교사,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글로벌 시티즌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연구과정을 개설함.
 - ▶ 이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청소년학과가 있는 대학에 우선적으로 글로벌 시티즌십 교과목 설치를 지원하여 지도자의 전문성 교육을 유도함.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전문인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를 실시함.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교육과정.
- 권을, 김한성, 박복영, 황주성, 홍수연(2006).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국제개발협력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2009). 2009 아동·청소년 백서.
- 김태완(2010). 글로벌 시민문화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3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 발표원고자료집.
- 김태준(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서울: 한국교육개발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준, 최상덕, 장근영, 이기홍(2009).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제 16-36호.
- Our World Alliance(2006). The World Youth Identity and Citizenship Survey.
- Oxfam GB(2006). 글로벌 시민 교육 학교를 위한 가이드. Oxfam GB.
- IEA(2010).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EA.

NYPI YOUTH REPORT 과월호 안내

- 제1호 경제위기와 빈곤
- 제2호 다문화와 탈북청소년
- 제3호 글로벌 환경 변화와 청소년
- 제4호 글로벌 인재와 청소년
- 제5호 청소년 인권
- 제6호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현황
- 제7호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 제8호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
- 제9호 청소년들의 활동 및 문화
- 제10호 다문화 가정 및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역량강화
- 제11호 멘토링과 청소년 사회 참여
- 제12호 창의적 체험 활동
- 제13호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
- 제14호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
- 제15호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 제16호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 제17호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 제18호 방과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 제19호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 조사
- 제20호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
- 제21호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
- 제22호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발전방안
- 제23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발달권, 참여권
- 제24호 청소년의 가족의식·가정생활 실태 조사
- 제25호 해외 청소년시설 평가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자료집 총 10권 발간안내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 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
(중·고등학생용)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 행동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받는 저작물이므로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하려면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비매품>

본 책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nypi.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11 기본연구과제

-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Ⅱ
- 「창의적 체험활동」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방안 연구
- 지역사회중심 청소년 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시스템 구축 연구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Ⅱ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Ⅱ
-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Ⅱ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Ⅱ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Ⅰ
- 청소년 국제교류정책의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청소년 도덕성 발달 검사 도구 표준화 연구Ⅰ
-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한국 아동·청소년 통계데이터 아카이브 콘텐츠 구축사업Ⅱ

